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미 증시, 젤렌스키의 '공격 통보' 발표로 변동성 확대 후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블라드 총재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과 우크라이나 우려로 하락하기도 했음. 다만, 여타 연준 위원들의 발언 및 우크라이나 이슈 완화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임. 오후 들어 젤렌스키가 2월 16일 공격을 통보 받았다고 발표하자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하기도 했으나, 각국이 서둘러 의미를 희석시킨 가운데 우크라이나 관리도 연설일 뿐이라고 주장하자 낙폭 축소하는 등 우크라이나 이슈로 변동성이 확대된 후 소폭 하락 마감(다우 -0.49%, 나스닥 -0.00%, S&P500 -0.39%, 러셀2000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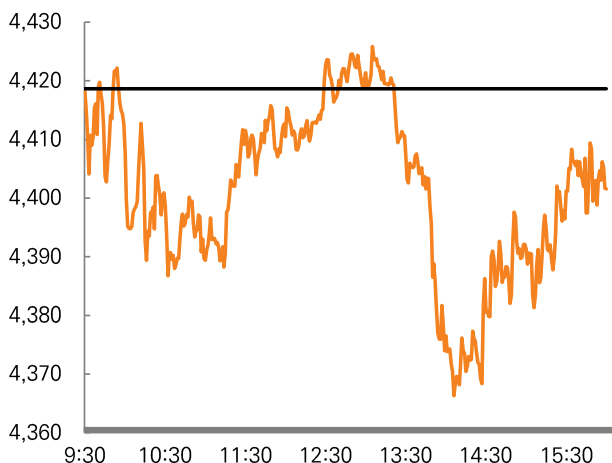
특이 종목

- AMD(+0.96%)는 자일링스(거래정지)와의 합병이 완료되자 일부 수급적인 영향으로 지난 금요일 급락했으나,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저가 매수에 매력적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여기에 반도체 산업 협회(SIA)가 올해 칩 산업이 8.8%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마이크론(+0.11%), 브로드컴(+0.90%) 등 여타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0.15% 상승. 테슬라(+1.83%)는 1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59,845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발표하자 강세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82% MSCI 신흥 지수 ETF는 0.7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8.3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5%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월 16일 공격을 '통보' 받았다는 발표로 변동성을 확대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그러나 블라드 총재의 3월 50bp 인상 가능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에스터 조지 총재의 반대 의견 등 여타 연준 위원들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언급은 투자심리 개선 기대를 높임. 여기에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한 점, 뉴욕 연은이 14개월 만에 1년 인플레이 기대치를 6.0%에서 5.8%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높인 점 등은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이슈가 부담되나, 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외국인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704.48	-1.57	상해종합	3,428.88	-0.98
KOSDAQ	852.79	-2.81	홍콩항셍	24,556.57	-1.41
DOW	34,566.17	-0.49	베트남	1,471.96	-1.98
NASDAQ	13,790.92	-0.00	유로스톡스 50	4,064.45	-2.18
S&P 500	4,401.67	-0.38	영국	7,531.59	-1.69
캐나다	21,352.51	-0.91	독일	15,113.97	-2.02
일본	27,079.59	-2.23	프랑스	6,852.20	-2.2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우크라이나 ②연준 위원 발언 ③코로나, 반도체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임박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슈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음. 특히 러시아 영국 대사의 트윗을 통해 군 병력이 훈련을 마치고 철군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대해 서방 국가들과 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투자 심리 개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정부도 미국의 발표와 달리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독일 솔츠 총리도 러시아와 단계적 완화 조치를 기대한다고 독-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온건한 발언을 한 점도 우호적

그러나 오후 들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전히 NATO 가입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2월 16일 공격을 ‘통보’ 받았다고 발표하자 재차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관련 발표 이후 주식시장은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으며,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확대하고, 밀 등 농산물이 상승 전환. 국채 금리 또한 상승분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등 변화를 보임. 다만, 젤렌스키는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정보를 제공했는지 말하지 않아 장 중 낙폭이 축소. 여기에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가 젤렌스키의 대국민 연설은 연설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프랑스는 “푸틴이 아직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은 없다” 라고 발표하고 미국과 영국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며 관련 우려를 완화시키자 재차 낙폭을 축소

한편, 장 시작 전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여전히 상반기 100bp 금리인상을 주장.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에 놀랐기 때문이라고 설명. 그는 인플레 대응과 관련해 현재 데이터를 중시하는 연준의 신뢰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자신의 공격적인 입장에 대해 여타 연준 위원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지난 금요일 일부에서 제기 되었듯 블라드 총재의 주장에 대해 여타 연준 위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실제 이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3월 금리인상을 선호하지만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조심스러운 금리인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 토마스 바킨 리치모든 연은 총재도 서비스 부문 인플레를 주목하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3월 50bp 인상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해 블라드 총재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각국에서 코로나 규제 완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여행, 레저, 항공, 호텔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모더나(-11.68%) 등 백신 관련 종목군이 급락. 한편,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컸는데 정제 마진이 감소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결국은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 그 외 테슬라(+1.83%)가 1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59,845대 판매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업종은 골드만 삭스의 AMD(+0.96%)에 대한 저가 매수 추천 및 반도체 산업 연맹(SIA)의 올해 8.8% 매출 증가 전망 소식에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요인이 영향

결국 미 증시는 우크라이나 우려가 여전히, 각국의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위한 노력이 부각되며 완화된 가운데 블라드 총재의 발언에 따른 연준 정책 이슈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외 개별 종목별 이슈가 더욱 부각돼 종목 장세가 펼쳐진 점이 특징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전기차, 리 오프닝 관련주 강세 Vs. 백신주 하락

AMD(+0.96%)는 자일링스(거래정지)와의 합병이 완료되자 일부 수급적인 영향으로 지난 금요일 급락했으나,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저가 매수에 매력적인 수준이라며 목표주가를 159달러로 제시하자 상승. 엔비디아(+1.33%) 등도 동반 상승. 여기에 반도체 산업 협회(SIA)가 올해 칩 산업이 8.8%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마이크론(+0.11%), 브로드컴(+0.90%) 등 여타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0.15% 상승. 테슬라(+1.83%)는 1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59,845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발표하자 강세. 다만, 번스타인 등이 여전히 테슬라의 주가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완전자율주행 부문이 반영되었다며 투자이견 매도를 발표해 상승은 제한

리비안(+6.46%)은 조지 소로스가 거의 2천만주를 매수 했다는 소식에 급등. 코로나 이슈 완화로 익스피디아(+2.63%) 등 여행, 디즈니(+0.92%) 등 레저, 라스베이거스(+2.33%) 등 리조트 업종 등은 강세를 보인 반면, 모더나(-11.68%), 화이자(-1.93%) 등 백신주는 부진. 록히드마틴(-2.37%)은 규제 당국의 반대로 에어로켓 로켓다인 인수 포기를 발표하자 하락. 다만, 우크라이나 이슈가 장 후반 재 부각되자 낙폭 축소. 모삭(-4.80%), CF(-6.51%) 등 농업 관련주는 장 초반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로 급락 했으며 장 후반 젤렌스키 발언에도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하락 마감. 보잉(-1.06%)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항공기 제조에 사용되는 티타늄 공급 차질 우려는 없지만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는 발표에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42	대형 가치주 ETF (IVE)	-0.66
에너지섹터 ETF (OIH)	-2.51	중형 가치주 ETF (IWS)	-0.94
소매업체 ETF (XLY)	+0.57	소형 가치주 ETF (IWN)	-0.45
온라인소매 ETF (EBIZ)	+0.20	대형 성장주 ETF (VUG)	+0.13
금융섹터 ETF (XLF)	-1.12	중형 성장주 ETF (IWP)	-0.66
기술섹터 ETF (XLK)	-0.06	소형 성장주 ETF (IWO)	-0.2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61	배당주 ETF (DVY)	-1.01
클라우드 ETF (CLOU)	+0.58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49
미국 리츠 ETF (VNQ)	-0.91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32
주택건설업체 ETF (XHB)	-0.11	미국 국채 ETF (IEF)	-0.69
바이오섹터 ETF (IBB)	-1.84	하이일드 ETF (JNK)	-0.12
헬스케어 ETF (XLV)	-1.02	물가연동채 ETF (TIP)	-0.27
곡물 ETF (DBA)	-0.3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89
반도체 ETF (SMH)	-0.07	모멘텀 ETF (MTUM)	-0.77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경기소비재	1,431.81	+0.58	-1.47	-7.38
커뮤니케이션	235.28	+0.32	-1.34	-10.08
IT	2,716.47	-0.04	-2.30	-6.66
필수소비재	782.41	-0.29	-1.28	-2.72
산업재	836.79	-0.40	-1.22	-6.52
유틸리티	337.33	-0.80	-2.85	-4.39
소재	523.38	-0.87	+0.69	-6.18
부동산	281.69	-1.02	-3.67	-6.91
헬스케어	1,501.79	-1.09	-2.40	-3.92
금융	658.84	-1.11	-1.46	-2.99
에너지	522.66	-2.24	-1.81	+6.2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여전한 우크라이나 우려 불구 반발 매수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0.82% MSCI 신흥 지수 ETF는 0.7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98.3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5%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 증시 급락 여파로 하락.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확대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된 점이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 물론, 주말에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해결 가능성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아시아 주요국의 하락도 부담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월 16일 공격을 ‘통보’ 받았다는 발표로 변동성을 확대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 그러나 젤렌스키가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는지 말하지 않아 최근 미국 발표를 인용한 것인지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관련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 실제 미 증시도 장 마감 앞두고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축소

이러한 우크라이나 이슈를 제외하면 블라드 총재의 3월 50bp 인상 가능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매파 성향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의 부정적인 발언 등 여타 연준 위원들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언급은 투자심리 개선 기대를 높임. 여기에 AMD가 골드만삭스의 저가 매수 의견에 상승했으며 반도체 산업 협회가 올해 반도체 칩 산업이 8.8%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해 장중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

한편,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한동안 지속되겠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한 점, 뉴욕 연은이 14개월 만에 1년 인플레이 기대치를 6.0%에서 5.8%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높인 점 등도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이슈로 0.3% 내외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독-러 정상회담, FOMC 의사록 공개 등을 앞두고 있어 부진하기 보다는 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외국인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장 후반,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여전히 영향을 주며 상승 출발 하기도 했으나, 독-러 회담 등 글로벌 각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분을 축소하기도 했음. 다만 OPEC 등이 수요 증가 및 공급 감소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자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장 후반 젤렌스키가 공격 통보를 발표하자 재차 상승폭을 확대하며 WTI 기준 95달러를 상회하는 등 변화를 보임

달러화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여전한 가운데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의 발언에 따른 공격적인 연준 정책의 가시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유로화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 이후 달러 대비 약세폭이 확대. 러시아 루블화는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브라질 헤알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멕시코 페소화는 글로벌 공급망 완화 기대로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 및 블라드 총재의 여전한 3월 50bp 인상 주장 영향으로 10년 물이 2.0%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보였음. 그러나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등이 3월 50bp 인상을 반대하는 등 블러드 총재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 후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격을 통보’ 받았다고 언급하자 상승을 축소. 더불어 뉴욕 연은이 14개월만에 1년내 인플레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인플레이 피크아웃 이슈가 부각된 점도 영향

금은 우크라이나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우크라이나 우려로 알루미늄이 급등한 가운데 구리와 아연 등은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임. 곡물은 우크라이나 관련 글로벌 각국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젤렌스키의 발언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혼조세를 보임.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5.34%, 철근은 1.85%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95.46	+2.53	+4.53	Dollar Index	96.338	+0.27	+0.98
브렌트유	96.48	+2.16	+4.09	EUR/USD	1.1300	-0.44	-1.24
천연가스	4.18	+6.01	-1.28	USD/JPY	115.57	+0.13	+0.41
금	1,869.40	+1.48	+2.61	GBP/USD	1.3529	-0.26	-0.05
은	23.85	+2.05	+3.35	USD/CHF	0.9255	-0.04	+0.17
알루미늄	3,214.50	+2.49	+2.63	AUD/USD	0.7125	-0.17	-0.01
전기동	9,920.00	+0.60	+1.46	USD/CAD	1.2726	-0.09	+0.47
아연	3,574.50	-1.43	-1.39	RUB/USD	0.0131	+0.77	-1.51
옥수수	655.25	+0.73	+2.82	USD/BRL	5.2189	-0.57	-0.70
밀	805.50	+0.19	+3.80	USD/CNH	6.3580	-0.12	-0.07
대두	1,574.00	-0.77	-0.77	USD/KRW	1,196.65	-0.15	-0.34
커피	247.90	-1.65	+2.31	USD/KRW NDF1M	1,198.34	-0.20	+0.0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995	+5.74	+7.86	스페인	1.295	+8.10	+21.80
한국	2.730	-0.50	+9.30	포르투갈	1.174	+0.90	+17.00
일본	0.218	-1.30	+2.10	그리스	2.634	+1.40	+15.10
독일	0.283	-1.40	+5.50	이탈리아	1.969	+1.80	+18.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